

구례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실시...유관기관 참석 "공조체계 강화해 테러에 선제적 대비·대응"

구례군은 11월 25일 구례군보건의료원 다목적실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2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원,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살포하는 테러로 다른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극미량으로도 치사가 가능하며 한 번 오염되면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조기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초동대응요원의 역할을 숙지시키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사건 또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 생물테러 대응 초동조치 방법 △ 개인보호복(Level A, C) 착용 △ 다중탐지카드 시험 △ 검체 이송 실습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김순호 군수는 "현대 사회는 사건·사고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생물테러 등 발생 가능한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20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종합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소방안전교부세 56억 원 지원

담양군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시설 정비 위주의 개선사업 한계를 보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방재 등 생활권 전반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모두 보행안전 및 편의, 주정차해결, 기반(인프라) 확충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타 정책 연계, 지역 활성화 등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민간합동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3개 지역에는 개선사업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56억 원(지역별 사업비의 50%내 최대 3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기존 보행사업의 체계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맞춰 지역특색을 살린 따뜻한 별과 영산강을 느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관광지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이끌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오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워크숍 성료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종식)가 주관한 '2022년 화순군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워크숍'이 2일 한미문화소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렸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화순군 복지인적안전망의 1년간 활동을 공유하고 회원 간 소통을 위해 열렸다.

"새로운 화순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공동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 농촌공동체의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이장·복지기동대 등 복지인정망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온 복지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훌륭한 복지인정망을 구축해 새로운 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갤러리 107 연말 기획 초대 '겨울 산책'展 개최



박창수 작 염불사 65.5x97.5cm



조영석 작 주전골 66x91cm

8일부터 31일까지

곡성군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곡성군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곳에서 '겨울 산책'이라는 주제로 연말 기획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의 유명 한국화가 11인들의 대작 22점을 만나 볼 수 있다. 강광일, 강종래, 문재성, 박창수, 박충호, 송관엽, 신동호, 오복동, 이승연, 정명돈, 조영석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화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 저마다의 독특한 화풍으로 전통적 기법을 계승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다채롭고 품격 있는 작품들이 관람에 재미를 더할 것이다"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곡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가 문화곡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산림청 공모 전남 유일 선정 쾌거

장성군이 산림청 주관 '2023년 유휴산림 자산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유휴산림 자산화 공모사업은 국공유지 산림 및 시설물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지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 지역에선 유일한 선정으로, 군은 국비 포함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하면 홍길동 우드랜드(병풍로 1022-26) 인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1998년에 조성된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은 애초 청소년 대상 체력단련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장성군은 북하면 홍길동 우드랜드 편백숲을 활용해 걷기 편한 무장애산책로, 편백 족욕탕 등 산림 치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차량 보호자 동승 ... 노인 일자리 연계·지원

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화 '세림이법' 지역아동센터 확대·적용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센터 인력난 해소, 안전한 등·하원 지원

나주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53조)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센터 통학차량 인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행 시 보호자 동승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센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상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아동센터는 총 24곳으로 이 중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을 운행

하는 곳은 19곳이다.

센터 종사자수가 대부분 2-3명에 불과해 차량 보호자 동승 시 아동 돌봄 공백, 업무 과다 등의 우려로 인력 운용에 고민이 깊은 상태.

이에 나주시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을 통한 차량 동승 보호자로 지원, 돌봄 공백 없는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으로 나주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내년 1월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나주=송준표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